

제주사회복지신문

>2014년 5월 2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79호

6·4지방선거 사회복지계 한 목소리 낸다



▲ 제주지역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2014 제주아젠다포럼'은 지난달 2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어 사회복지 의제를 논의했다.

‘2014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출범

오는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2014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이하 아젠다 포럼, 수석대표 고치환)이 출범했다.

도내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임태봉)를 비롯

한 15개 사회복지 직능별 단체로 구성된 아젠다 포럼은 지난달 2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복지 아젠다’ (15개 세부 아젠다)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는 ▲공공복지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민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 ▲사회복

지종사자 인권확보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회복지사 전문연수 및 자격수당 지급 ▲제주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등이다.

아젠다 포럼은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선언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주 사회복지계의 목소리가 차기 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아젠다 포럼 고치환 수석

대표는 “이번 아젠다 포럼은 제주 사회복지계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의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뜻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사회복지 예산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문제 등 산적한 사회복지계 현안을 후보자에게 알리고, 이를 차기 도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전국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제주지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제주지회

제주도내 가정의 달 행사 취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과 슬픔을 나누는 차원에서 오는 5월 5일 및 8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9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제42회 어버이날 행사 등 주요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울러 마을 단위 경로잔치도 전면 취소해, 국가적 재난극복에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 만들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사회복지소식 4·5면
제주행복기자단 업무협약식 열려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토론회
- 기획 8면
10대 사선으로 바라본 제주(13)
법률홈닥터(9)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김수완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 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기적을

작은 불씨하나 꺼뜨리지 않고
모두 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에 애도하며,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랍니다.

<캘리그래피-배정애>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 만들기

여성친화정책 아이디어 도민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도정 전반에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제안내용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여성안전시스템 구축 ▲여성

친화도시 공간 조성 등 여성친화 정책 관련 전반에 대하여 제안 할 수 있다. 우수제안은 시책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해 나가고 시상도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여성친화정책 아이디어 공모’란을 클릭하거나 팩스(710-2869), 우편, 직접 방문하여 제안하면 된다.

도장애인부모회, “사랑나눔 일일호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는 지난 달 22일 제주마라나관광호텔에서 “장애인복지기금 마련 사랑나눔 일일호프”를 개최했다. 박영재회장은 “장애인가족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마련된 이 자리에 장애인가족과 지역사회주민, 자원봉사자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찾아주어 많은 호응과 지지 속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엄마와 함께 몸으로 느끼는 ‘달크로즈 뮤직’ 진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지난 달 9일부터 상반기 놀이프로그램 ‘엄마와 함께하는 달크로즈 뮤직’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28일까지 총 8회기로 매주 수요일 복지관내 장난감도서관에서 운영한다. 이날 진행된 교육은 첫 회기 9가정이 참여하여 음악의 기본 ‘박’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창의적인 신체 리듬을 발달시키는 활동을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종합사회복지관(064-753-2742)으로 문의 가능하다.

이어도자활센터, 자활매장 맛드림 개점



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는 지난 달 17일 자활매장 맛드림을 개점했다. 맛드림은 저소득주민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으로 지난해 4월 시범사업단을 거쳐 10월 정식사업단으로 전환 운영 중이다.

맛드림은 건강먹거리를 직접 제조 및 판매하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

위 계층 6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역 중소형마트 및 유통 전문매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매장에서 다양한 밑반찬을 착한 가격에 구입 가능하며, 향후 도시락 납품 분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착한매장,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맛드림이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순복음복지관, 제2기 28청춘합창단 개강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 달 3일 ‘제2기 28청춘 합창단’을 개강했다. 제주도 여성발전기금지원을 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이 사업은 60세 이상 실버노인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활동과 타 기관 자원봉사활동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은 이 사업을 통해 활기찬 노년활동과 우울감 해소 및 긍정적 마인드로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지역사회 어르신들 관계형성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엘린, 국무총리 표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한봉금 원장)은 지난 달 16일 The-K 서울호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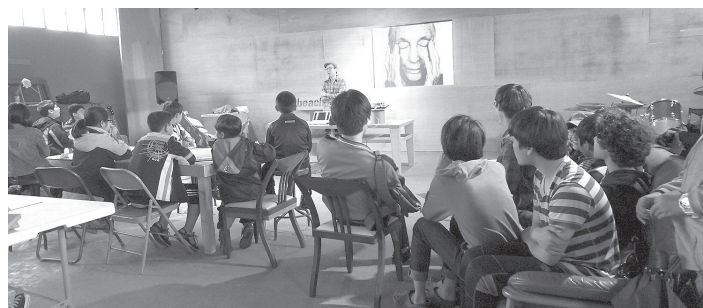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한 행사로 ‘꿈 그리고 열정’을 주제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엘린은 지난 2012년 5

월 18일 개원하여 호텔엘린(숙박업), 엘린클린(청소용역)업장을 운영하며 직업교육, 훈련, 상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시스템으로 근로장애인들이 사회인으로서 자립기반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엘린은 현재 4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동물 환경 이웃을 위해 활동해요!”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와 ‘대정골지역아동센터’는 평소 동물과 자연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와 중학생을 모아 ‘뿌리와 새싹’을 출범했

다. 이 모임은 제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음악과 인문학 강의를 펼치고 있는 박하재홍씨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난

달 19일 에월읍에 위치한 <반짝반짝 지구상회>에서 첫 모임을 시작했다. 이날 환경 예술가들과 축하영상을 함께 감상하고 교사와 학생이 평등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제주 뿌리와 새싹’은 ‘재미와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원 활동을 연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에 필요한 환경 제도나 프로그램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제34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열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17일 한라체육관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 도의원,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관련 단체와 시설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장애인

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한 장애인 대상을 비롯해 모두 개인 37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가 전수됐다. 다음은 유공자 표창 수상자 명단이다.

▲제18회 대한민국 올해의 장애인대상 수상자△강동식 ▲제주도 장한장애인 대상△김철석 ▲제주도장애인 어버이 대상△박순자 ▲제주도장애인도우미대상 △허도심 △김여옥(단체상: 손뜻모아 봉사회) ▲정부포상자 국무총리표창△김금자(송죽원) ▲보건복지부장관표창△오영수(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지회)

▲제주도지사표창패 수상 △강호상(제주도수화통역센터)△이양숙(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제주시지부)△강일순(지적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고광자(주, 커민스제주)△오성훈(한국신장

장애인협회 제주시지부)△김경화(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조영삼(영천동)△이정철(자광원)△변기정(도장애인심부름센터) △문미진(제주도수화통역센터)△김선천(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김홍임(도지체장애인복지협회)△강경윤(한국신장장애인제주협회) △강경돈(제주 DPI)△전신애(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지회)△유태복(일도2동)△이민철(제주장애인야간학교)△박재석(한국척수장애인협회제주도협회)△강봉신(한국장애인사랑협회제주지부)△김순선(대한안마사협회제주지부)△문태권(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홍정선(한국장애인복지시설제주도협회)△오영순(장애

인직업재활시설 일 배움터) △현정훈(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사)△송창현(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고복희(제주영지학교)

▲제주도의회 표창패 수상△진인화(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지부)△박서연(제주도수화통역센터)△김경숙(도지체장애인협회)△하윤철(도장애인협회)△강덕순(한국장애인협회 서귀포지부)△박보미(제주 DPI) △강동춘(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고옥주(고전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감사패 △고정식(제주도의원)△양용창(제주시농업협동조합장)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감사패△강동원(우도면 부면장)△양명수(탐라장애인복지관)

꿈의 신문 만드는 행복기자학교 출범식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미란)는 지난달 12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스스로 꿈과 비

전을 디자인하는 구좌읍 아이들의 성장지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꿈의 신문 만드는 행복기자학교 제2기 구좌어린이 기자단 및 사진학교 출범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삼성꿈장학재단이 교육복지중점사업으로 후원하고, 구좌읍 관내 종달지역아동센터(한재민센터장), 우리하도지역아동센터

(안희흥센터장),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박미란센터장)에서 배움터 참여기관 업무협약으로 구좌꿈비디네트웍(스스로 꿈과 비전을 디자인하는 구좌읍 아이들의 성장지원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축하공연에 이어, 이슈제주와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한라대 봉사 동아리 ‘유니콘’ 미술치료 봉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봉사 전공동아리 ‘한라 유니콘은(회장 장창욱)은 지난달 13일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효사랑을 찾아 미술 치료 프로그램 봉사 활동을 진

행했다. 한라유니콘은 지난 2001년에 창설돼 한 달 세 번 정기봉사와 함께 비정기 봉사 활동 등 지역 내 여러 사회복지시설들을 돌아다니며 노력봉사는 물론 학습지도, 어르신 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학 동아리로선 드물게 법인 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지난 10여년간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제주YMCA, 고교야구단 창단 인준식 개최



제주YMCA(대표 김태성)는 지난달 5일 2014년 고교YMCA 신입생환영회 및 고교야구단을 창단하는 인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제네바에서 한국YMCA전국연맹 100주년 기념행사 참여 차 한국

을 방문한 조안(Johan) 세계연맹 사무총장을 비롯해 前YMCA 아시아연맹 회장인 박재창 교수가 참석했다.

조안사무총장은 청소년들에게 “세계는 넓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진취적인 세계관을 가졌으면 한다”고 격려를 했으며, 고교Y 야구단 인준식에도 축하를 전했다.

대한항공 다솜마루와 함께하는 맛있는 나들이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다솜마루봉사회(회장:

고양열)의 후원으로 제주 KAL호텔에서 맛있는 나들이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나들이는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다솜마루봉사회는 대한항공 제주지역 근무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2006년 창립된 이후 매년 노력봉사, 물품후원, 나들이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사랑나누기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4월 식품기탁자

▲안신희씨=채소류 4kg ▲이민정씨=조기 등 식재료 16개 ▲금강수산유통=고등어살 120kg ▲금강축산유통=육류 427kg ▲김치원=김치 40kg ▲동원F&B제주=식재료 1605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384모, 콩나물 16봉 ▲신성상사=국간장 240개 ▲아리랑떡집=떡볶이떡 50kg ▲암양영농조합법인=유기농사탕 10개 ▲이든이네=멸치 7.5kg ▲자연드림이도점=빵 103봉 ▲제주보리촌=보리빵 37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200팩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849봉



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3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사용액
재가결연후원	1,690,000	6,78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370,000	370,000
복지사업후원	1,060,000	429,000
푸드마켓후원	2,915,000	40,0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주행복기자단 사업보고회 및 업무협약식 열려



▲지난달 24일 제주행복기자단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아라중합사회복지관, 미디어제주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지난달 24일 제주행복기자단

했다.

이번 행사는 2차년도 제주행복기자단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3차년도 사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유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업보고회는 영상 보고를 시작으로 언론멘토와 기자단의 활동소감 발표, 기사, 기고글을 사업보고서로 제작해 참석자들과 공유를 강화했다.

서귀포시장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향후 3차년도

제주행복기자단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제주 지역사회의 건강한 시민기자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아라중합사회복지관, 미디어제주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도내 청소년·시민기자, 마을신문 제작 관계자와 연계한 합동 기고콘서트 추진, 자체신문 제작, 다양한 신문 지면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증진과 소통을 위해 최선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울림터, ‘산과 들을 마시자’



사회복지법인 춘강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는 지난달 15일 제13회 서귀포시장에 인한마음축제에서 새롭게 개발한 꽃차 및 다과(떡)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했다.

어울림터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미취업장애인들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야생초, 꽃차의 제조 프로그램 ‘산과 들을 마시자’를 진행하고 있다.

소/식/마/당

도노인보호전문기관, 행복나들이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 부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는 지난달 15일 피해학대어르신들을 모시고 2박 3일 나들이프로그램인 ‘함께해서 좋아요, 행복나들이’를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울산 초락당에서 한방치료와 경주 신라 밀레니엄 파크, 불국사 등을 관광하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도자원봉사센터,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회장 고충석)는 지난 3월 27일 제주월켄센터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원 발굴 연계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한 문제점 돌출과 행복제주를 만들기 위한 지역 재능 나눔 사랑운동을 구축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제주노인복지센터, 실버원예교실



동제주노인복지센터(소장 김명혜)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노인들의 역량 강화와 치매예방을 위한 실버원예교실을 실시한다.

이번 원예교실은 평생교육에 대한 학구열 충족과 자존감 향상, 심리, 정서적 안정을 취하여 치매 예방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 노인복지기금 공모 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부모아카데미 ‘컬트교실’ 5회기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부모회 부설 제주시장애인 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지난달 5회기에 거쳐 2014년도 장애인가족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자녀를 두 부모를 대상으로 한 ‘컬트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선도어린이집 개원 17주년 기념행사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부설 선도어린이집 개원 17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28일 개최된다.

이번 기념행사는 선도원 부설 벨엘, 마리아의 집과 사단법인 국제사회복지회 부설 노인복지센터, 아홉 노인복지센터의 종사자 및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실시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정영은)는 지난달 17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행사는 지역주민 300명 대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편견해소를 위해 정신건강강좌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및 지역사회조사결과보고 ‘제주시 노인 우울 및 자살경향성’을 실시했다.

탐라복지관, (주)곰지락과 MOU체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은실)과 농업회사법인(주)곰지락(대표 홍미옥)은 지난달 14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곰지락은 재능기부 및 프로그램 지원, 물품(공예생산물)지원, 체험학습 지원을 통해 장애인복지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혜정원 마라톤대회 및 걷기 대회 입상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장 이민숙)은 지난달 1일에 열린 ‘제15회 제주시장애인 한마음축제 마라톤대회와 걷기대회’에 총 31명이 참가하여 지적장애인이자부문 마라톤대회에서 유주연(27)씨가 1위를, 지적장애인남자부문 걷기대회에는 김대권(22)씨가 3위에 입상했다.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제7회 아동학대추방의 날 기념식 개최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지난달 25일 ‘제7회 아동학대추방의 날’을 맞아 서귀서초등학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추방의 날 기념식을 개

최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4월 23~24일까지 서귀서초등학교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아동학대예방 영상 및 아동 학대 예방 사진전

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故 양지승 어린이를 추모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기념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년 4월 27일은 아동학대추방의 날임을 홍보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톨릭주간보호, 함께사는 세상의 즐거움Ⅱ 실시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제주 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현성훈)는 지적·자폐 성장장애인의 심리재활프로그램 ‘함께 사는 세상의 즐거움 Ⅱ’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3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원예활동, 음악

활동, 수영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2013년도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신체운동 기능 및 집중력 향상뿐만 아니라 표현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의 장애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소통수단으로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진’ 5월 15일까지 공모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직무대행 양창근)는 ‘사랑의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진’을 주제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15일까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응모 가능 하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공모전은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입선 10명 등을 선정한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은 지난 3월 27일 지역주민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구좌사랑 행복찾기 작은 음악회 ‘국악연희단 하나아트의 국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연희단 하나아트의 재능기부로 진행되었으며, 공연을

본 지역주민은 “이런 지역 음악회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마을에서 이런 공연을 접할 수 있어 신기하고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도내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을 초청하여 해마다 1~2차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체험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 아동교육지원팀은 지난달 19일 복지관 이용아동 가족 66명을 대상으로 ‘가족공동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체험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딸기농장에서 딸기를 관찰하고 직접 따서 먹어보는 등 색다른 경험을 통해 아동 가족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아라복지관, 한마음체육대회 실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연합회(회장 천금순)가 주관하고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이 주최한 ‘2014 자원봉사자, 후원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12일 제주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자원봉

사자 및 후원자, 내외빈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 신입직원들의 축하무대, 유공자원봉사자 표창, 단체경기, 노래자랑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관협회,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회장 이상언)는 지난 3월 26일 도내 9개소 종합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

관 ‘추자와수다’의 일환으로 비양도를 방문했다.

이날 복지관협회는 장애인 생필품지원, 이·미용 봉사 및 해안가 정비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비양도, 우도, 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등 5개 도서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칼럼

양성평등한 삶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성 주류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법적인 근거는 2002년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12년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양성평등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효과적으로 정

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 정착을 위해서는 센터는 중앙, 지자체, 컨설턴트, 거버넌스와 협력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와 더불어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과제선정의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제선정위원회 역할강화, 과제선정범위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및 성인지 예산 매뉴얼 지속적 검토 등이 요구된다.

셋째,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는데 근거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넷째, 교육대상 및 심화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은 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 의원 및 의회사무처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공무원과 개별과제 담당공무원을 구분하여 교육내용을 심

화하여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책제안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대상으로 성 주류화 인식,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컨설턴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컨설턴트간 정보교류 및 의견수렴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체계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정책의 젠더 관점과 이슈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연계, 협력을 통하여 성 주류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들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모니터링을 통한 정책환류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통하여 양성평등한 삶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시론

아! 제주 4·3



문익순

전 4·3사업소장

시인 T. S. 엘리엇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후략) 라고 읊조렸다. 4월에 발발한 제주 현대사의 최대비극 4·3이 66주년을 맞았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4·3트라우마(Trauma)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4·3이란 단어조차 금기시되고, 연좌제의 질곡에 휩박받던 인고의 세월. 4·3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사건발발 반백년이 지나서였다. 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부터다.

2003년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가 정부에서 채택되고, 제주도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도 있었다. 이로써 암울하고 참혹했던 시절, 진상이 하나둘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2014년은 4·3이 국가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면서 화합과 상생을 위한 4·3해결의 진일보한 시발점이 되었다.

이데올로기 넘어 평화 지향 해야

4·3당시는 오늘처럼 자유민주의 기본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어수선한 시대상황이었다. 특별법과 진상보고서가 확정된 후에도 일부보수집단에서는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금년에도 추념일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반발했다. 공산무장병력간부, 무장유격대와 협력, 진압군경과 가족을 살해한 자, 경찰관서 방화 등에 적극 가담한자도 희생자에 포함되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패가 공존한다는 것.

이 주장을 덮고 화해와 상생을 외쳐본들 통합이 되겠는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이제, 올바른 역사의 해석을 전제로, 4·3은 이데올로기 차원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평화를 지향해야만 한다.

2011년까지 확정된 희생자는 1,4000여명, 유족은 3,1000여명에 이른다. 희생자중 156명은 후유장애인으로 시대적 상흔의 고통을 안고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다. 후유장애인과 유족들에게는 진료비 지원과 2011년 9월부터 80세 이상 고령유족 1400여명에게 월 3만원, 후유장애인들에게 월 8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4·3특별법은 명예회복법이기에 때문에 개별적 보상대신 평화공원조성, 유해발굴과 유적지정비사업 등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평화공원조성사업은 1단계 위령과 추모, 2단계 기록과 기념, 3단계 승화와 확산·교류를 테마로 한다. 1,2단계사업에 592억 원을 투자했다. 이제 평화교육센터, 고난극복전시관, 연못수질개선, 평화의 종 설치 등 3단계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4·3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도내 유적지는 총 597개소에 이른다. 지금까지 북촌 너븐숭이 등 4개소를 정비하는데 그치고 있다. 미정비 유적지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슬픈 역사의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앞으로, 보수집단에서 주장하는 문제의 검토와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그야말로 4·3의 완전해결을 도모해야 시점이다.

기고

행복세상을 위한 변화와 배려



김현철

제주시 여성가족과

요즘 들어 3살배기 아들 때문에 아내의 푸념이 잦다. 일하면서 육아와 가사일에 항상 쫓기고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눈치가 보인다는 위킴의 애환을 구구절절 토로한다. 이럴때 잠자코 있는 게 상책이다. 공감도 충분히 가지지만 자구책이 마땅치 않다. 최근들어 능력있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육아와 일(직장)을 양립 함에 있어 힘들어 하고 있다. 오죽하면 육아와 일(직장)을 양립하는 여성을 “슈퍼맘”이라 부르고, 결혼적령기에 있는 능력있는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일과 가정의 양립은 시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 못지않게 가정에서 가사 분담과 직장에서의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제주시에서도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집안 각종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에 연

가사용 및 유연근무제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무시간이 끝나면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사회분위기 조성이 더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일반회사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세금감면 등 우대정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수 있는 직장 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그리고 나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실천해 보자. 작지만 사소한 일들이 우리 사회, 우리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토론회

관광 제주, 장애인여행은 ‘바닥수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도 갈 수 있는 곳만 여행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곳을 여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토론회’가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주최로 열린 이번 제주지역 토론회는 ‘장애인 여행권’을 주제로 잡았다.

발제를 맡은 제주도의회 박주희 의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했으나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관심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며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통한 관광향유권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은 “일본 오키나와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관광지’를 목표로 관광배리어 프리선언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관광윤리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장애인 관광이 ‘시혜’로서의 수용태세에서 ‘새로운 마켓 창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표적시장 증가에 따른 관광 비즈니스 대책 마련 및 노년계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관광 관련 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돼 있어 왔으나 연속성 및 정책추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으며, 관광진흥법 및 조례 등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복지 담당이나 관광 담당이나’를 놓고 부서 간 의견이 갈려 정책추진 및 관심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조례 시행이후의 과제에 대해 “이행수준이 다소 미흡하다”며 “조례

공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동수단에 대한 현실은 더욱 참담했다.

제주도 내 렌터카 보유대수는 1만 6000대에 이르고 있으나, 핸드콘트롤러가 장착돼 있는 렌터카는 단 2대 뿐이며, 전동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리프트 장착 승합차는 단 1대에 그치고 있다. 또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는 2006년 10대 도입된 이후 추가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마저도 고장 등으로 인해 단 8

로 예약을 거부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인데다, 매년 400여 명 이상의 농아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지만 수화통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화통역센터에 관광전담 통역사도 계약직 1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라대학교 문성종 교수는 “제주 장애인관광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선진국들의 장애인관광 패러다임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티니크 캐리비언 프랑스령의 경우 장애인들이 주요 관광지과 숙박·음식점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관광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장애인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문성종 교수는 “장애가 있는 제주도민조차 제주관광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제주관광이 양적팽창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형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사무관은 “그동안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사업에 노력해왔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았던 것 같다”며 “앞으로 장애물 없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관광센터와 스마트 관광기반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관광약자를 위한 진정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관광환경 개선 조례 제정했으나 이행수준은 ‘미흡’ 도내 1만 6000여 렌터카, 장애인 이용가능한 차는 단 3대

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직 구성하지 못했으며, 인증제 활용을 아직 하지 못했다”며 “정책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며, 1년여 간 시행한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고은호 사무처장은 “지난해 제주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센터가 제주지역 숙박시설 333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7.7% 정도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79.2%보다 낮은 수치다. 333곳 중 30곳만이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일반 객실보다 20~30%이상 비싼 가격에 제

대만 운행하고 있으며, 저렴하게 제주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 제주시티투어 버스도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수화통역센터 배우리 팀장은 “제주도관광협회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70.4%가 재방문 의사를 밝힌 반면,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제주 재방문율은 10%대로 매우 낮다”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62% 정도가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으나 농아인 관광객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13) - '우리고장, 화북동을 찾아서'

따뜻한 그리움 품은 고향의 향수를 뿌리다



●●●●●
몽생이(夢生里)기자단은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주중학교·제주중앙여자중학교·제주영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
 영상제작동아리 “떠나는 미소지음”내 기자단 동아리로 매월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제주”라는 주제로 “제주사회복지신문”
 지면기בע를 통해 활동하는 기자단입니다.
 몽생이(夢生里)는 제주방언으로 조랑말이라고 하지만 꿈을 넣는
 마을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며, 제주사회복지신문 기자단 활동을
 통해 우리 제주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꿈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도 담고 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감사와 존
 경의 마음이 가득한 가정
 의 달입니다.

주변 가족과 친구, 친지,
 선생님을 찾아뵙고 감사함
 과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내가 살고 있는 우
 리 고장이 더욱 소중하고
 고마워지는 따뜻한 봄 5월
 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제주중학
 교와 제주중앙여자중학교
 의 몽생이 기자단 2기는 가
 정 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
 까운 우리고장, 화북동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고
 장이라는 주제로 제주도민
 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상
 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화북은 너무 도심지도 아
 닌, 그렇다고 촌도 아닌 도
 시와 농촌, 어촌이 공존하

는 마을입니다. 몽생이 기
 자단은 마을곳곳 거닐며 소
 박하지만 정겨운 자연을 만
 나기도, 동네에 오랫동안
 역사와 함께 살아온 어르신
 을 만나기도, 동네에서 제
 각각 어른들의 삶에서 열
 심히 살고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미소 가득한 천진
 난만하게 동네를 활보하는
 우리포래 친구들과 어린이
 들, 심지어 평온한 듯 거닐

고 있는 동네 고양이와 강
 아지를 만나면서 왠지 모를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정
 겨움과 따뜻함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다보니 따로 힐
 링을 찾아 멀리 떠나지 않
 아도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에서 충분히 행복함을 찾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문득 다양한 이유로 제주

도를 떠나 멀리 살고 있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만
 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
 습니다. 몽생이 기자단의 5
 월 기사는, 이렇게 고향을
 떠나 제주도를 그리워하는,
 제주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따뜻해지고 그리워하
 는 사람들을 위한 모든이
 들을 위해 “향수”라는 주
 제로 메시지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햇살 따뜻한 5월, 천천히
 동네 한바퀴 걸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 소중한 사
 람들과 함께 걷는다면 더욱
 금상첨화겠죠. 같이 걷다보
 면 어떤 선물보다 더욱 값
 진 5월의 선물이 되지 않을
 까요?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람'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⑨

한국인이 되고픈 두 아이의 엄마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의 귀화를 도운 사례



정 광 영 법무관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베트남 이주여성 S씨(여)
 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남
 편 L씨와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한지 4년이 다되어가는
 이주여성이다. S씨는 L씨와
 의 사이에 1남 1녀(여, 3세/
 남, 1세)를 낳아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편인
 L씨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의 이주여성 배우자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이수하

는 등 화목하고 행복한 나날
 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S씨는 아직 귀화
 를 하지 못한 상태이며 L씨
 역시 부인이 귀화할 수 있거
 를 바라보고 있지만 어려운 용
 어와 복잡한 서류 준비 등으
 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L씨
 는 본인의 마음과 달리 귀화
 절차에 관한 서류나 절차에
 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없어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다문화가
 족지원센터는 법률홍닥터에
 게 귀화절차에 대하여 조력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률홍닥터는 직접 L씨와
 S씨를 만나 귀화에 필요한
 서류(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
 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본, 여권사본, 증명사진, 가
 족사진 등에 대하여 설명하
 고 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것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L씨에게 어머니 명
 의의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준비하게 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재정능력을 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측에
 는 통보서와 베트남 국적 신
 분증 번역서 및 번역에 해한
 확인서를 준비하도록 협조
 를 요청하였다.

법률홍닥터는 L씨와 S씨
 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만나 신원진술서 및 귀화허
 가신청서를 함께 작성하고
 국적계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출입국관리
 사무소로부터 L씨 어머니
 소유의 주택만으로는 재정
 상황을 증명하기는 어려워
 이로 인해 귀화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약 L씨
 가 농사를 짓는다면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
 는 것으로 보충이 가능하
 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법률홍닥터는 L씨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하여 조합으로부터
 재직증명서와 같은 종류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해주었고, 결국 위
 서류는 며칠 후 L씨가 우편
 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마무리 될 수 있
 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면접절차만 통과하면 귀화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설명해 주었고, 법률홍닥터
 는 귀화면접 절차에 관해 직
 접 설명해 주었다.

그 후 5개월 후 귀화허가

서를 받았으며, 법률홍닥터
 는 S씨가 성본 창설과 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대한민국에서 당
 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
 이다.

INFO

법률홍닥터는 수요자 중
 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
 른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
 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
 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
 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
 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
 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홍닥터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
 청서 작성
 - 전화상담 : 702-3782